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장 선거전 본격화

시의회 김동찬·반재신·김용집 의원 후보 등록
도의회 이용재·이장석·김기태·사문순 4자 구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진용을 꾸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의장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선거는 재선 의원 3명이 경쟁을 펼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의원 3인방이 출사표를 던졌고, 예초 출마가 예상됐던 초선그룹은 한 발 물러섰다. 4일 마감된 의장 후보 등록에는 김동찬(북구5), 반재신(북구1), 김용집(남구1)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23명의 시의원 중 민주

당이 22명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민주당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독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시의회 의장 선거는 강기정 전 북구갑 지역위원장과의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 겸 북구를 지역위원장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교롭게도 북구갑 지역구인 반재신 의원과 북구를 김동찬 의원이 나란히 출마를 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9일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인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2년 동안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5일 등록후보 공고를 거쳐 정견발표와 투표는 9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진다. 의장 후보등록 마감 결과, 3선 이용재(광양1)·이장석(영광2) 의원, 재선 김기태(순천1) 의원, 초선 사문순(장흥1) 의원이 등록했다. 선거는 오는 10일 치른다. 의장 선거는 당초 재선 이상 의원 3명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으로 예상됐지만, 사 의원이 후보등록 막판 도전을 내밀면서 4자 구도가 형성됐다. 재선 이상 3명은 제11대 의회가 개원 전에 공명선거를 실현하겠다고 선언문을 발

표하는 등 의장선거 준비에 들어가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후보 4명은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회 전체 58석 중 54석을 휩쓴 민주당 소속이다. 나머지 4석은 평화당과 정의당이 2석씩 차지했다. 의회운영·기획행정·보건복지환경·경제관광문화·안전건설소방·농림해양수산·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장도 이번이 없는 한 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초선 의원이 41명(70.1%)에 달해 의정 활동에 입문한 이들의 표심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우치공원에 조성되는 백두산 호랑이 조형물 예시 그래픽.

우치동물원에 백두산 호랑이 조형물 건립

광주시·기아 지난해 우승 기념
1억5000만원 들여 2.3m 높이

백두산 호랑이는 지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KIA타이거즈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멸종위기 종인 호랑이 종보존 활동 지원 사업을 제안했고, 이 조형물은 광주시에 기부채납한다. 광주시는 이 조형물이 완공되면 우치공원 내 포토존이 형성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연고인 KIA타이거즈의 마스코트인 호랑이 조형물은 우치공원 동물원 성격과 잘 맞다"면서 "보존이 절실한 백두산 호랑이를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며 이르면 오는 8월께 완공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와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1억5000만원을 들여 우치공원에 백두산 호랑이 조형물을 건립한다.

4일 광주시는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중앙 출입구에 호랑이 조형물 3점을 세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조형물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로 2.8m, 세로 3.6m, 높이 2.3m)가 바위 위에 서 있고, 작은 새끼 호랑이 두 마리가 뒤를 따르는 형상으로 제작된다. 타이거즈의 지난해 11번째 우승을 기념해 조성되는 이 조형물에는 백두산 호랑이의 복원과 보존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광주수영대회 입장권 1만원~15만원

전체 종목 평균가격 3만6000원

장애인(1~6급), 65세 이상 경로는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은 40% 할인이다. 20인 이상 단체는 개회식과 폐회식 10%, 일반 경기 30%의 할인을 받아 관람할 수 있으며, 3차례가량 진행할 조기예매는 최대 15%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다. 대회 입장권 예매는 내년 초부터 조직위 공식 입장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예정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내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동호인들의 축제인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20여 개국 1만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한편 FINA 홀리오 마글리오네 회장과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 조이 주버하이다이빙기술위원회 위원은 5일 광주를 찾아 이용섭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여수 등지의 경기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또 오는 7일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D-1년 행사'에도 참가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폐회식과 종목별 입장권 가격이 1만원-15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국제수영연맹(FINA) 홀리오 마글리오네 회장이 광주를 처음으로 찾아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대회 전반을 논의하는 등 개막 준비도 손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전체 종목의 평균 입장권 가격은 3만 6000원이며, 인기 종목인 경영과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의 예선전 B석은 1만원, 결승전 S석은 7만원이다"면서 "대회 최대 이벤트인 개회식과 폐회식의 입장권 가격은 2만원부터 15만원까지로, 이전에 개최된 다른 국가 대회와 비슷하게 매겼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국내 대규모 대회 사례를 참고해 국제수영연맹(FINA)과 협의를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할인정책도 마련했다. 국가·독립운동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전남 소규모 재생사업 10곳 선정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전남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적으로 54건을 선정한 이번 공모에서 경기(1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선정됐다. 여수 공화동 '역전의 한려동 한지촌 한솔밭', 순천 조곡동 '정촌 내일리의 천국, 순천역 역사권 재생사업' 등 7개 시·군에서 지원한 10개 사업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마중물 성격으로 지역 주민이 사업 계획을 직접 세워 제안하고, 도시 재생 과정에도 직접 참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규모에 따라 5000만~2억원씩 국비를 지원받는다. 주요 사업은 소규모 마을 정비, 빈집·폐교·폐공장 시설 리모델링 활용, 마을 공방·도서관 운영, 지역 자산을 활용한 재생계획 수립 등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염병 예방 긴급방역
고 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며 한낮기온이 30도까지 오른 4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긴급방역반원들이 용봉동의 주택가 공원에서 각종 전염병과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원재활용 등 자원순환 관리기능을 강화했다. 시민소통과 행정혁신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공동체추진단의 시민소통 기능과 자치행정과의 민원실 기능, 대면인실의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기능을 통합한 시민소통 기획관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추진단의 행정혁신 기능과 행정지원과의 인사기능을 통합하고 혁신교육 기능을 추가한 혁신정책관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3급 본부장급인 군공향이전추진본부를 한시 조직으로 두고 35명 2개 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경제부시장→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변경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광주시는 4일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모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2018년 정부의 현장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승인된 신규 146명을 반영했다. 또, 기존 조직인 3실 6국 3본부 58과에서 4실 6국 3본부 62과로 재편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문화와 경제 부문을 전담하는 문화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했다.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실로, 사회통합추진단의 광주형일자리, 노동정책기능과 일자리정책과를 통합해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바꿨다. 투자유치과와 기업육성과 통상담당을 통합해 투자통상과로 명칭 변경해 일자리경제실로 배치했다. 전략산업본부 전략산업국으로, 미래산업정책관을 미래산업정책과로 변경했다. 스마트행정담당관실의 스마트시티와 공공데이터 기능, 재난예방과의 폐쇄회로

(CC)TV 관제기능, 미래산업정책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능 등을 통합한 스마트시티과를 전략산업국에 신설했다. 이 밖에 여가부와 복지부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인구복지국으로 이관하고, 청소년 육성 및 진화도시 업무를 사회복지정책과로, 사회복지정책과의 다문화 기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조정했다. 또 기후와 자원순환 임무가 혼재된 기후변화대응과를 기후대기과와 자원순환과로 나눠 미세먼지 등 기후대기 기능과 자

옛. 밝은광주안과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평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